



외래객 지역 이동 편의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한다

- 5. 27. 문체부와 국토부 ‘관광-교통 정책협의회’ 출범, 외래객 3천만 명 시대 견인
- 관광·교통 협업 과제로 외래관광객 이동 범위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희영, 이하 문체부)와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, 이하 국토부)는 관광객들의 지역관광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매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 부처 정책 협력 토대로서 ‘관광-교통 정책협의회(이하 협의회)’를 구성하고 5월 27일(수) 오전 10시, 정부세종청사 15동 회의실에서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한다.

방한 관광 대전환 위한 입국 및 이동 편의 개선 협력

협의회는 양 부처 실장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, 안건별로 번갈아 주재할 예정이다. 관광과 교통 분야 정책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 8명 내외로 구성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, 관광객들이 지역 방문 시 복합적인 이동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의회이다.

이번 제1차 협의회에서는 ‘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’의 협업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, 추가로 해결해야 할 쟁점 과제를 논의한다.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교통(항공) 할인권 배포 등 마케팅과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*을 논의할 계획이다.

- * ▲수요응답형 교통(DRT) 및 버스 확충, ▲심야 공항버스 리무진 신설, ▲고속철도(KTX) 사전 예매 기간 확대, ▲플랫폼 택시 전용 승·하차 구역 설치, ▲관광통합패스 운영 등

부처 간 장벽 허물어 외래객 3천만 명 시대 이동권 보장

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“외래객 3천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

지역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이며, 그 핵심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.”라며, “외래관광객이 낯선 땅에서도 내 나라처럼 편안하게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 상승효과를 발휘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여정에 불편함이 없는 관광지대로 만들어 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“부처별로 분산해 추진하던 관광 활성화 정책을 ‘관광-교통 정책협의회’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“버스, 항공,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 외국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진희 (044-203-2870)
		담당자	사무관	정유진 (044-203-2873)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	책임자	과장	심민석 (044-203-2891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영 (044-203-2898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장	배석주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	류나린 (044-201-3791)

